“최순실·박 대통령이 준 모욕감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제주서 비행기 타고 집회 참여

◇이광정(73·제주)=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까지 날아온 이씨는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며 “손자, 자식은 물론 내 후손들의 미래와 국가의 앞날을 위해 국민을 속인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기 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과 검찰, 경찰, 국정원, 새누리당을 ‘오적’(五賊)이라고 표현했다. 이씨는 “비록 나이가 많지만 국가를 위기에 빠트린 오적을 처단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망가진 교육도 바로 잡아야

◇박준영(43·충남·전국학부모회 대표)=박 대표는 “모든 국민이 다 느끼는 박근혜 대통령이 준 모욕감 때문에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현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었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그동안 국정 역사교과서, 누리 예산 문제 등 상식적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박 대통령 퇴진과 함께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규명을

◇정성욱(47·안산·세월호 인양분과장)=세월호 참사에 희생된 고(故) 정동수 군의 아버지 정씨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목놓아 외쳤다. 그는 “그동안 가족들은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순실 사건이 터져 가족들도 의구심이 더 커졌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뭘 했나’, ‘왜 지시하지 않았나’를 밝히고 만약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건 박 대통령이 우리 아이들을 학살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현장에서 분노 표출하고 싶어

◇류해안(23·광주·전남대 철학과 학생회장)=류씨는 광화문광장에서 학우 20명과 함께 학과 깃발을 추켜 올렸다. 류씨는 “분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장에 오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생 사이에서도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물론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정책들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라며 “노동 문제부터 여성, 교육 등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민 아픔에 종교인 함께해야

◇명진(서울 봉원사 스님)=명진 스님은 “국가가 있어야 종교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진의를 보기 위해 직접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불교인권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진 스님은 과거 ‘용산 사태’ 때에도 공동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국가 위기상황을 누구나 동의하는 것 같다”며 “이런 현실에서 국민의 아픔이 있는 곳에 종교인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광화문 광장을 찾았고, 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슬픔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표 찍어준 죄책감에 달려왔다

◇안태옥(58·서울·자영업자)=“지난 2012년 18대 대선 때 행사한 1표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기분이다”고 분노를 표현했다. 안씨는 평생 보수 정당과 계층을 지지해왔다. 이날(12일) 전까지는 촛불집회 등에는 한 번도 참여해 본적이 없었지만 이번 만큼은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씨는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그동안 보수 정권과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내가 죄책감이 들어 가슴이 아팠다”고 전했다.

국민 더 아프게 말고 물러나야

◇이윤재옥(55·춘천·비정규직)=강원도 춘천에서 비정규직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이씨는 국민을 배신한 박 대통령을 향한 분노 때문에 광장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국민으로서 나라가 너무나도 걱정돼 당연히 와야 하는 자리에 왔을 뿐”이라며 “박 대통령이 더는 국민을 아프게 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대통령이 물러나야 비정상적인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것 같다”고 했다.

노동자 권리 되찾으려 퇴진 투쟁

◇황의환(58·울산·항만공사특수경비원)=항만공사특수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황씨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그 주위에 내시처럼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씨는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민중총궐기 참가 계기를 설명했다. 그는 “현 정부는 권리를 되찾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노조를 마치 범죄자로 취급한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대통령 퇴진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피켓 만들어 아버지 졸라 나왔죠

◇이규란(13·경기·중학생)=“시험공부를 해야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나왔어요.” 경기도 양평군 서종중학교 1학년인 이양은 이날 친구 김채은(13)·서하늘(13)양의 손을 잡고 광화문 광장을 찾았다.

박근혜 대통령 ‘꼭두각시’ 피켓을 직접 만든 이 양은 아버지에게 광화문 광장에 가자고 졸랐다. 이 양은 “부모님이 평소에도 시국대회, 촛불집회 등에 관심이 많아서 종종 참석하곤 했다”며 “계속 촛불집회에 참여해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겠다”고 밝혔다.

국민 말 안 듣는 대통령 나빠요

◇이한솔(11·서울·영서초등학생)=이군은 또랑또랑한 눈빛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외쳤다. 이군은 “박 대통령은 지난 세월호 사건 때는 물론 임기 내내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대통령이었다”며 “초등학생이 봐도 너무 실망스러운데, 어른들의 배신감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군은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배웠다”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광화문=특별취재단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대규모 3차 집회가 열린 지난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청와대 “현 상황의 엄중함 깊이 인식”

수석비서관회의 수습책 논의

청와대가 ‘100만 촛불집회’ 이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촛불에 분출된 민심의 분노가 워낙 커 시급하고도 적절한 수습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고심의 결과물을 정리해 3차 대국민 담화 형태로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연국 대변인은 1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촛불집회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과 향후 정국수습 방향에 대해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우선 서울 도심에만 100만명(주최 측 추산)이 몰리면서 6월 항쟁 이후 최대 집회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민심이 심각하다는 점을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도 관저에서 집회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참모들은 전날 비상근무에 이어 이날도 오전부터 수석실별로 내부 논의를 한 뒤 한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정국수습 방안에 대해 숙의했다.

내부적으로는 박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사과하고 특검까지 수용 의사를 밝혔고 청와대 개편에 이어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하겠다고 했음에도 퇴진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답답해 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다만, 청와대도 민심의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런 의미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대국민사과, 이달 4일 대국민담화에 이어 3차 담화 형태로 국민 앞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국회추천 총리에 대한 권한이양 의지를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향후 정치일정을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 나아가 정치권에선 대통령 탄핵 및 조기대선, 탈당 요구 등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 대통령 독대 대기업 총수 줄소환

이재용·정몽구·구본무·김승연·권오준 등 조사

작년 7월 박근혜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한 것으로알려진 대기업 총수들이 주말 검찰에 줄소환됐다.

최순실 의혹’ 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작년 개별 면담이 어떤 경위로 마련됐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은 이날과 다음날에 걸쳐 청와대와 외부 모처에서 개별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검찰은 12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 사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SK수펙스 의장 김창근도 참고인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하고 돌려보냈다. 또 현 정부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47·구속)씨 측의 옛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지분 강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밤샘조사를 받고 12일 오전 7시 10분께 귀가했다.

이와 함께 최순실씨 측에 대한 삼성그룹의 특혜성 자금 지원 의혹과 관련해 박상진(63)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이 검찰에서 밤샘조사를 받고 13일 오전 귀가했다. /연합뉴스